

검 토 보 고 서

1. 의 안 명 :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재심의 및 인산병원 장례식 영업허가 재심의 청원

2. 검토경과

- 접 수 일 자 : 2008. 10. 20(월)
- 제 출 자 : 박광봉(일신 에일린의 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)외 1,135명
- 위원회회부 : 2008. 10. 23(목)
- 위원회심사 : 2008. 12. 1(월)

3. 청원요지

- 인산병원과 상가건물의 주 출입구가 좁은 도로로 향후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점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재심의 요청.
- 인산병원 신축부지는 남외중학교와는 불과 170m 거리여서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안에 위치해 있는데도 사전에 학부모,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였으며
-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생활환경, 발생할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되었으므로 인산병원 장례식장 영업행위 허가취소(또는 건축행위 허가 취소) 요청함.

4. 근거법규

- 청원법
- 지방자치법 제73조 ~ 제7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8조, 제59조
-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

5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남외운동장지구내 2B 2N에 2007년 2월 9일 중구청이 인산병원(장례식장 포함)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어주자 중구 남외동 일신 에일린의 뜰 아파트(920세대) 주민들이
 -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, 발생할 교통문제,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하였고
 - 남외중학교와 17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한점
 - 신축 인산병원과 상가건물의 주 출입구가 아파트 좁은 도로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점
 - 인산병원의 주차장이 200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어 교통혼잡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점을 건축주인 인산병원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
- 본 건은 2006년 12월 18일에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허가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후 2007년 2월 9일 건축허가 처리 되었으며
- 2007년 4월 공사착공하여 건축물 내부공사중인 상태에서 장례식장

건립으로 주거, 교육환경 등이 침해되므로 장례식장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으나

- 허가권자인 집행부에서는 인산병원 건립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써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「별표9」에 의거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을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법적 타당성이 있음을 근거로 허가 하였음.
- 주변 생활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인산병원 부지와 아파트 부지와는 약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위치하고 있으나 장례식장은 지하1층에 빈소 5개 규모로 설치되어 있고 장례식장 시설과 아파트와의 실제거리는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짐.
- 2006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과 협의한 바, 장례식장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대상 용도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적이 있음.
- 교통대란 및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12m 도로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천 강변로쪽의 녹지대 일부를 해제하여 장의차량은 대로변(30m)에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하였고, 병원 및 상가 부지에도 차량 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렸으나 법정주차대수가 당초 72대에서 병원측에 권고하여 총 190세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, 기히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가 된 것으로 보아 심도 있는 논의로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.